

외교부 : 야스쿠니신사 관련 일본의 소극적 동향 전격히 반대

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일본측이 침략 역사를 반성할 데 관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고 군국주의와 철저히 관계를 결별하여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린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에서는 4월 21일부터 이른바 '봄철 제사'를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과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이 21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으며 개별적인 내각 구성원들이 야스

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왕문빈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군국주의가 발동한 대외침략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며 여기에는 그 침략전쟁에 대해 중대한 죄책이 있는 A 급 전범 14명이 봉안되어있다."고 말했다.

왕문빈은 중국측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동향을 전격히 반대한다며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이 이미 각각 일본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일본 수상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한국측 깊은 실망과 유감 표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은 21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봉안된 야스쿠니신사에 '마사카기'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 등 정치권 고위층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봉안했다며 일본 정계 고위층이 재차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한 것에 대해 한국측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측은 일본측이 책임있는 태도로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미래지향적 량자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 신화넷

한국, 독도 주권 주장한 <외교청서>에 관해 일본에 항의

한국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다이ске를 초치해 일본정부가 당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에서는 죽도라고 칭함)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또 대변인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에 논평을 발표하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모두 한국 고유의 령토에 속하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권 주장을 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측에 관련 표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논평은 또 한국측은 한국 고유의 령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주장도 한국측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측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는 조선반도 동쪽 해역에 위치해있으며 면적은 약 0.18평방킬로메터이다. 한국, 조선, 일본 모두가 이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 신화넷

60% 넘는 일본 국민, 자민당 하야 원해



1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13회 국회 개막식 현장. / 신화넷

일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일본 국민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후 '하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매일신문》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교체되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약 62%의 응답자가 자민당이 퇴진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응답자는 약 24%로 집계됐다.

년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59세 일본 국민중 약 70%가 자민당의 집권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야당인 립헌민주당의 지지자중 90% 이상, 다른 야당인 일

본유신회의 지지자중 약 70%가 자민당의 하야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자민당의 집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30%에 육박하는 지지자도 자민당의 더 이상의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응답자가 기시다 수상이 이끄는 기시다파(派)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는데 기시다 수상 본인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기시다내각은 계속해서 낮은 지지률을 배회하고 있다. 지지통신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내각의 지지률은 16.6%로 추락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민당의 지지률 역시 15.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넷

[국제시평]

일본의 일련의 위험한 동작은 무슨 목적일까

<미일 안보조약>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미국과 오스트랄리아, 필리핀과 합동군사훈련 진행, '오커스'(AUKUS) 가입 론의 등 일본의 위험한 동작이 최근 빈번해지자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유지인사들은 일본정부가 현재 군사동맹을 빌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면서 '전쟁을 향한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역대 국가들은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련의 동작중에서 론쟁이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은 미일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판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미국은 협조해 방위할 의무가 있으며 미군은 주일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은 방위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최근년간 미국은 이른바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왔다. 한편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은 평화헌법 숙박에서 벗어나길 시도, 국가의 정상화와 군사 대국화를 꾀하며 미국의 힘을 빌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일본정부의 최종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상의 '전면적인 해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다수 민중들이 이를 반대하자 일본정부는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후의 군



2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민중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일본 중의원의 고역 방위비 예산안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 신화넷

사적 금기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있으며 '동맹국을 돕는다'는 등 다른 국가를 핑계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여 점차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일련의 위험한 동향은 각계의 경각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평론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이미지가 질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

대 군사대국으로서 아태 사무에 개입하는 자체가 짙은 군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 격상은 이곳의 원유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 다른 나라의 우려와 불만을 일으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아태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이지 대국이 겨룸을 펼치는 바둑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빛을 진 나라로서 일

/ 국제방송

미·일 네티즌, 인기리 방영 영화 드라마 놓고 설전...



3월 29일, 영화 《오오펜하이머》가 일본에서 방영되었다. / 신화넷

말이다.

◆ 미·일 네티즌의 설전으로 드러난 '731 부대'의 추악한 면모

많은 일본 관객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과 관련한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오오펜하이머》가 지난 3월 29일 일본에서 개봉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난했다.

이에 바다 건너 미국 네티즌들은 “일본인들은 '731 부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후 설전은 한 토크쇼에 의해 심결(熱搜)에 올랐다. X 플랫폼의 한 1인미디어(自媒體) 블로거(博主)는 미시간대학교의 한 일본계 교수를 연결해 미국이 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를 꺼리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 학자는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일종의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외국 네티즌들은 일본이 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4월 2일 이 토크쇼를 리트윗(转发)하면서 '731 부

대'를 한번 검색해보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까지 해당 트윗(推文)은 29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놀라운 건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에야 비로소 '731 부대'를 알게 됐다고 했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도 남경대학살 같은 걸 배운 적이 없다.”며 “나중에 스스로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료를 검색한 후에 “극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당연히 '731 부대'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라며 분개했다.

◆일본인의 반성 불러일으킨 역사적 사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赫芬顿邮报)는 최근 일본어판 홈페이지에 <731 부대를 다룬 한국 드라마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 《경성크리치》를 게재하여 드라마에 의해 소환된 일본 '731 부대'의 죄행을 전했다. 기사는 일본 엑스(X)에서 대량 리트윗됐다.

조회수를 제한하기 위해 야후 웹사이트가 리트윗한 이 기사는 최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SNS에서 '731

부대' 화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열띤 논의는 식지 않고 있다.

해당 기사는 '731 부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가토 데쓰로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은 물론 해외 인사들도 이 드라마가 '731 부대'를 알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731 부대'의 실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후 한 일본 네티즌은 “'731 부대'에서 인체 실험이 자행됐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놀랐다. 그 시대의 일본인을 용서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입을 어찌 다 막을 수 있겠는가? 일본 인으로서 나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लाख물이 대돌을 뚫듯이 내가 한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선대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겠다.”고 댓글을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랑심있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끊임없이 되돌려 놓고 있다.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모리무라 세이치는 장편보고문학 《악마의 포식》에서 '731 부대'가 중국에 대규모 세균전 연구기지를 세워 수천명의 중국·조선 등의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을 폭로했다.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마쓰노 마코토는 1940년이라고 표기된 '관동군 방역급수부(给水部) 장교 고등문관 직위표'를 최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일본군 참모본부에 '731 부대'에 절강성 녕파, 취주 등지에서 세균전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기돼있었다고 밝혔다.

가토교수는 '731 부대'에 관한 더 깊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역사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왜 일본인을 그렇게 묘사해야 했는지?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일본은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야만 상호 리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신화넷